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VERSEAS 투르비용

시계 전체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테크니컬 시계

WATCHES AND WONDERS 2024  
엠바고 해제일 : 2024년 4월 9일 오전 8시 30분(CET)

## OVERSEAS 투르비용

개요

OVERSEAS와 티타늄의 완벽한 조합

정교하게 제작된 울트라-씬 칼리버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을 갖춘  
실용적인 시계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컬렉션을 상징하는 블루 다이얼이 적용된 Overseas 투르비용 모델의 시계 전체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버전을 선보입니다.
- 울트라-씬 매뉴팩처 칼리버 2160으로 구동되는 셀프 와인딩 투르비용 모델입니다.
- 시계와 함께 교체 가능한 티타늄 브레이슬릿, 카프스킨 리더, 러버 소재의 스트랩이 제공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티타늄 시계 라인에 풍성함을 더할 Overseas 투르비용 모델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 크라운과 베젤까지 모두 티타늄 소재로만 제작된 이 모델은 컬렉션의 상징적인 블루 다이얼을 갖추고 있으며,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칼리버 2160으로 구동됩니다. 6시 방향의 오픈된 다이얼을 통해 투르비용 레귤레이터를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이 무브먼트는 22K 골드 페리페럴 로터로 칼리버를 와인딩하며, 3일이 넘는 여유로운 파워 리저브를 자랑합니다. 티타늄 케이스와 무브먼트 모두에 매우 정교한 마감 기법을 적용하여 완성된 Overseas 투르비용은 여행의 정신을 담은 컬렉션의 매력을 드러냅니다. 시계와 함께 일체형 티타늄 브레이슬릿(그레이드 5 티타늄 트리플 블레이드 폴딩 버클 장착)이 제공되며, 이는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제공되는 카프스킨 리더 및 러버 소재의 2가지 스트랩(교체 가능한 그레이드 5 티타늄 폴딩 버클 장착)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 OVERSEAS 투르비용

개요

OVERSEAS와 티타늄의 완벽한 조합

정교하게 제작된 울트라-씬 칼리버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을 갖춘 실용적인 시계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Overseas와 티타늄의 완벽한 조합

티타늄은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메탈로, 스포츠나 테크니컬 시계에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저자극성 소재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Overseas 컬렉션은 1996년에 첫 선을 보였으며 8년 후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금 재해석되어 19세기 초반부터 메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불어넣었던 탐험 정신과 선구적인 철학을 그대로 구현합니다. 티타늄 시계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컬렉션 출시 이후부터 차별화된 감각을 선사했던 스포티하고 모험심 가득한 테크니컬 시계의 코드와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바쉐론 콘스탄틴이 최초로 외관 전체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으로 선보인 타임피스인 Overseas 투르비용 스켈레톤에 이어 이제 Overseas 시계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의 솔리드 다이얼을 장착한 새로운 버전으로 등장합니다.

견고한 티타늄 소재 특성상 타임피스에 적용되는 메탈 마감 기법은 무엇보다도 엄격한 원칙과 세심함,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정교한 손길을 요하며, 이와 같은 작업에는 그레이드 2 티타늄과 그레이드 5 티타늄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특별한 손길로 완성된 Overseas 투르비용의 폴리싱 처리된 각진 링크의 브레이슬릿과 케이스백에는 섬세한 수직 새틴 브러싱 마감이 적용되었으며,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베젤 링은 원형 새틴 브러싱 마감이 돋보입니다. 말테 크로스와 닮은 베젤 면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매트 효과는 타임피스에 시각적으로 더욱 풍부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선버스트 새틴 브러싱 처리된 플랜지로 더블 미닛 트랙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반투명 블루 래커 다이얼이 장착되었으며, 티타늄 소재와 함께 은은한 빛을 자아내는 Overseas 투르비용은 일상 속의 모든 상황에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 OVERSEAS 투르비용

개요

OVERSEAS와 티타늄의 완벽한 조합

정교하게 제작된 울트라-씬 칼리버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을 갖춘  
실용적인 시계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정교하게 제작된 울트라-씬 칼리버

대담한 모험의 정신을 품은 이 시계는 6시 방향에서 장엄한 자태를 선사하는 투르비용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레귤레이터가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만들어 내는 기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쉐론 콘스탄틴의 세계에서 위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이 지닌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무브먼트의 등시성에 미치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투르비용은 정확성을 보장하며, 여행을 위한 시계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 점에서 시계는 인체공학적으로 완벽한 곡선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10mm가 살짝 넘는 얇은 두께로 제작된 Overseas 투르비용 모델은 견고한 티타늄의 매력은 유지한 채 손목에 편안하면서도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두께가 단 5.65mm에 불과한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칼리버 2160은 Overseas 투르비용에 더욱 우아한 품격을 더합니다.**

80시간의 넉넉한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배럴과 22K 골드 페리페럴 로터가 장착된 무브먼트는 울트라-씬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 제작 부문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탁월한 기술적 역량을 입증합니다.

또한 중앙에 로터가 위치하지 않는 구조 덕분에 무브먼트 전체와 정교한 마감 기법을 또렷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원형 그레인 기법이 적용된 메인 플레이트, 고프드 제네브 모티프 장식과 더불어 수공 베벨링 처리로 완성된 브릿지, 섬세하게 수공 폴리싱 처리한 투르비용 바, 정교하게 그레인 처리된 휠, 여기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챔퍼링 및 폴리싱 처리한 스크류에 이르기까지 총 188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칼리버 2160에서는 탁월한 기술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진귀한 하이 위치메이킹의 매력을 구현합니다. 2.5Hz(시간당 18,000회 진동)로 진동하는 이 무브먼트는 시간과 분을 표시하며, 이외에도 말테 크로스 형태의 투르비용 캐리지 위에 블루 컬러의 스크류 디테일을 활용하여 스몰 세컨즈를 표시합니다.



## OVERSEAS 투르비용

개요

OVERSEAS와 티타늄의 완벽한 조합

정교하게 제작된 울트라-씬 칼리버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을 갖춘  
실용적인 시계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을 갖춘 실용적인 시계

시계에는 편안하게 조정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트리플 블레이드 폴딩 버클이 돋보이는 일체형 티타늄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폴딩 버클을 고정하는 링크는 최대 4mm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손목에 여유로운 공간을 선사합니다. 스타일에 맞게 시계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일체형 티타늄 브레이슬릿 대신 추가로 제공되는 카프스킨 레더 또는 블루 러버 소재의 스트랩으로 별도의 도구 없이 교체 가능합니다. 스트랩 또한 마찬가지로 도구 없이 교체 가능한 그레이드 5 티타늄 폴딩 버클을 갖추었습니다.





## OVERSEAS 투르비용

개요

OVERSEAS와 티타늄의 완벽한 조합

정교하게 제작된 울트라-씬 칼리버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을 갖춘 실용적인 시계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From Geometry to Artistry

바쉐론 콘스탄틴의 타임피스는 단순한 부품들의 합체 그 이상입니다. 스케치와 기하학적인 드로잉에서 시작하여 기술적 부문으로의 확장을 통해 형태, 색상, 그리고 질감이 어우러진 세계가 탄생합니다. 장인의 지성으로 감성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기계 공학의 정교한 구조는 디자인과 결합하고, 세심한 디테일은 우아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타임피스는 철차와 수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예술적인 재능을 최상의 경지로 표현하도록 영혼이 충만한 우아한 터치가 더해집니다. Overseas의 스포티하면서도 시크한 정신을 반영하고 시계 전체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타임피스는 기하학적 형태에서 받은 영감을 예술적 기교로 승화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2024년 테마를 통해 완성됩니다.



## OVERSEAS 투르비용

개요

OVERSEAS와 티타늄의 완벽한 조합

정교하게 제작된 울트라-씬 칼리버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을 갖춘 실용적인 시계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바쉐론 콘스탄틴이 컬렉션에 티타늄을 처음으로 도입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스틸보다 30% 더 견고하면서도 무게는 그 절반에 불과한 티타늄 소재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스포츠 시계 컬렉션에 완벽히 적합한 특성을 지닌 메탈입니다. 티타늄이 처음으로 사용된 모델은 2008년 Quai de l'Île 컬렉션 제품이었으며, 이후 2009년 Overseas 타임피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1개 모델을 포함하여 총 2개의 셀프 와인딩 모델의 베젤에 티타늄이 사용되었죠. 이듬해 듀얼 타임 모델에도 동일한 베젤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가 겸 등반가로서 'One of not Many' 탤런트 중 하나로 활약 중인 코리 리처드(Cory Richards)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코리 리처드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각각 듀얼 타임과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탑재한 2개의 Overseas Everest 리미티드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는 까다로운 환경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의 탐구 및 탐험 임무를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2021년에 출시된 두 가지 모델은 티타늄 케이스, 베젤, 푸셔, 푸셔 링으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품들의 목표는 Overseas 시계의 스포티한 매력과 견고함을 강조하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리미티드 에디션이었고, 일반 제품으로 출시되지는 않았습니까.

강렬한 디자인과 스틸 케이스가 돋보이는 2가지 모델은 2가지 150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듀얼 타임 버전의 프로토타입은 2019년 코리 리처드의 에베레스트 탐험 중 하나에 함께했죠. 바쉐론 콘스탄틴의 디자이너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2022년에는 메종 카탈로그에서 시계 전체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Overseas 모델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컬렉션 최초로 등장한 투르비용 스퀘레톤 타임피스는 올해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동일하게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투르비용에만 오픈워크 디자인이 적용된 솔리드 다이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케이스 내부에는 스퀘레톤 버전이 아닌 다른 모델과 동일한 울트라-씬 칼리버 2160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시계는 컬렉션의 스틸 시계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가볍고 견고한 소재로 스포티한 타임피스 디자인을 연출함과 동시에 바쉐론 콘스탄틴의 명성 높은 테크니컬 시계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제는 스퀘레톤 버전과 블루 다이얼을 탑재한 버전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OVERSEAS 투르비용

개요

OVERSEAS와 티타늄의 완벽한 조합

정교하게 제작된 울트라-씬 칼리버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을 갖춘  
실용적인 시계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티타늄은 종종 스포츠 시계에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최초로 시계 전체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모델에 크로노그래프와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아닌 투르비용 무브먼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매종은 앞서 2가지 Overseas Everest 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해 이미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모델로 열광적인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그 점에서 다른 영역을 탐구할 시기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투르비용 칼리버 2160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욱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할 수 있도록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Overseas 컬렉션 최초로 칼리버 소재의 20%를 덜어낼 수 있는 스켈레톤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티타늄 소재의 특성과 스켈레톤 무브먼트의 탁월한 구조, 여기에 정확성을 보장하는 투르비용 레귤레이터를 갖추어 탁월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시계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세련된 Overseas 스포츠 시계를 구성하는 요소인 셈입니다. 올해 모델은 이전에 출시된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모델의 코드는 유지하되 컬렉션의 상징적인 블루 다이얼과 티타늄이라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색다른 미학을 선보입니다.



## OVERSEAS 투르비용

개요

OVERSEAS와 티타늄의 완벽한 조합

정교하게 제작된 울트라-씬 칼리버

손쉽게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을 갖춘 실용적인 시계

FROM GEOMETRY TO ARTISTRY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 TECHNICAL DATA Overseas tourbillon

Reference	6000V/210T-H032
Calibre	2160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peripheral rotor 31 mm (1 3/8") diameter, 5.65 mm thick Approximately 80 hours of power reserve 2.5 Hz (18,000 vibrations/hour) 188 components 30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on tourbillon carriage (coloured screw) Tourbillon
Case	Titanium Grade 5 42.5 mm diameter, 10.39 mm thick Soft iron casing ring ensuring anti-magnetic protection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t tested at a pressure of 5 bar (approx. 50 metres)
Dial	Translucent blue-lacquered, sunburst satin-finished base with velvet-finished flange 18K white gold hour-markers and hours & minutes hands highlighted with blue Super-LumiNova®
Bracelet	Titanium Grade 5 (half Maltese cross-shaped polished and satin-brushed links) Secured by a titanium Grade 5 triple-blade folding clasp with push-pieces and comfort-adjustment system
Additional straps/clasp	Blue calfskin leather strap with grey stitching Blue rubber Self-interchangeable titanium Grade 5 folding clasp

Available only through the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